

혼밥 시대에 읽는 삼시세끼 음식언어의 성찬

우리 음식의 언어

한성우 지음

요즘 음식 전성 시대이다. 삼시세끼와 맥락(먹는 방식), 혼밥(혼자 먹는 밥), 집밥(집에서 먹는 밥)같은 음식관련 용어가 매체에 자주 오르내린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 맛집 기행이나 요리 레시피 방송이 여러 차례 나온다. 그렇지만 음식문화 뿌리를 찾고,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모습은 보기가 드물다.



이름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살핀다. 저자는 일반인들이 너무 익숙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우리 음식의 말'을 곱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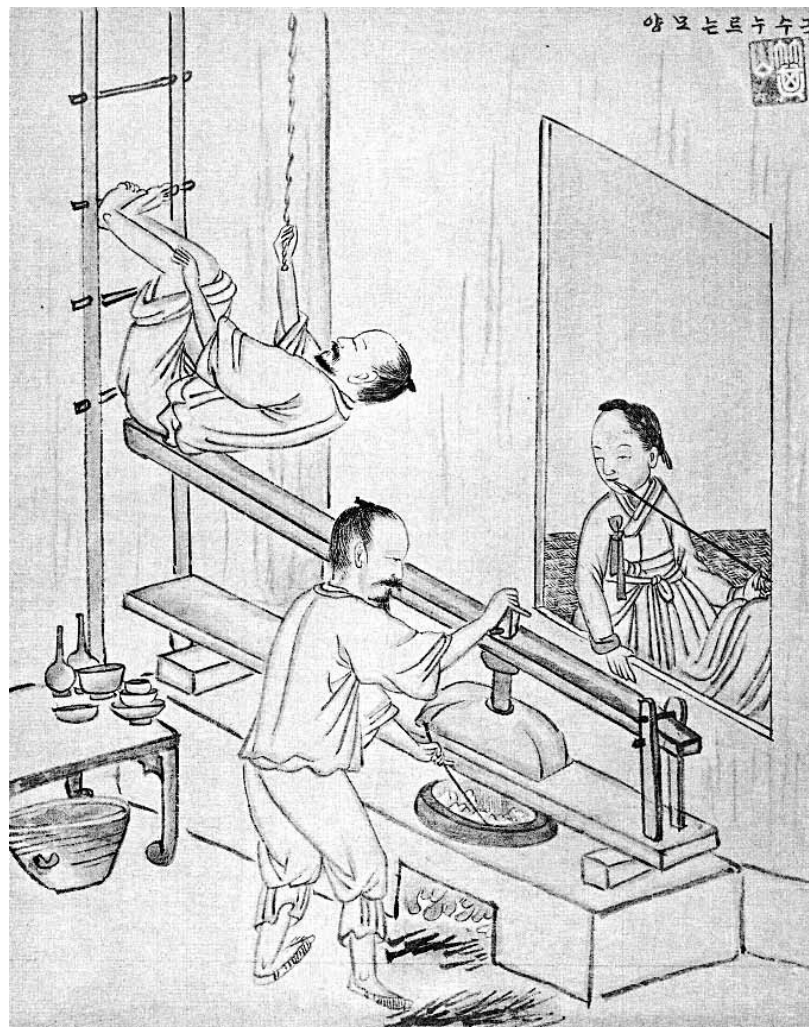
왜 '햇쌀'이 아니고 '햐쌀'로 표기할까? 11세기 고려 개경을 방문한 송나라 사신 손목은 고려 말 353개를 채집해 '계림유사'를 남겼는데 쌀을 '보살(菩蓊)로 적었다. 저자는 당시 고려 사람들이 쌀을 '보 + 술'로 발음했는데 '보'이 앞단어에 붙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설명한다.

밥의 높인말은 '진지'이고, 입금에게 올릴 때는 음식전체를 '수라'라고 한다. 어원은 몽골어 '술라'에서 왔을 수 있다. 해장국은 '장을 풀다'는 뜻의 해장(解腸)을 먼저 떠올리지만 숙취를 푸는 '해장'에 뿌리를 둔다고 한다.

우리가 밥 대신 즐겨먹는 빵에도 세계사가 스며있다. 본래 포르투갈어 '팡'(pão)이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유입되며 '빵'으로 자리를 잡았다. 호빵은 오랑캐를 뜻하는 호(胡)가 아니라 '호호불어서 나뉘먹는 빵'이란 의미로 생산업체에서 작명했다.

시금치는 중국어 '초근차이'(赤根菜)에서, 김치는 '침채'(沈菜)→침채를 거쳐 완성된 발음이다. '담도리탕'에 대한 풀이도 눈길을 끈다. '도리'가 일본어로 새를 뜻한다는 일반적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조리(調理)의 옛발음 '도리'가 '도리'로 바뀌었거나, 닭을 도리내 조리를 하기에 '도리'가 음식이름에 들어갔거나, 옛적에 '도리탕'이란 음식이 있었다는 가설을 내세운다.

이 책은 우리 밥상에 오르는 음식들이름에 어떤 유래가 있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저자의 경험담을 섞어 쉽고, 재미있게 들려준다.



100년 전 국수는 재료 구하기가 어렵고 만드기도 어려워 제사나 잔치 때만 먹는 귀한 음식이자 최첨단 공법으로 만든 '하이테크 푸드'였다. 19세기말 풍속화가 기산 김준근이 그린 '국수 누르는 모양'. <독일 함부르크 민속박물관 소장>

지금의 밥상이 아닌 식탁의 시대로 바뀌었다. 저자는 "밥"이 주인이어서 '밥상'으로 불리던 것이 '먹을 것'이 주인이어서 '식탁'으로 불리는 것에 자리를 내준 변화가 가장 큰 차이"라며 "그 변화는 오히려 말에 반영된다"고 말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난해 앞서 출간된 미국 언어학자 맨 주 래프스키가 쓴 '음식의 언어'와 함께 읽으면 글로발한 시각속에서 우리음식의 맛깔스런 성찬을 만끽할 수 있을 듯하다. <여크로스·1만6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흑단처럼 검다=출간과 동시에 전세계 52개국에 번역 계약을 맺은 소설, 제1권 '피처럼 붉다'를 통해 '스노우화이트 신드롬'을 일으키며 스칸디나비아 스릴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소설은 제2권 '눈처럼 희다'와 제3권 '흑단처럼 검다'가 동시에 출간되면서 3부작이 완결됐다. 시크하고 독립심 강한 열일곱 살 여고생 루미키 안데르손의 이야기에 눈을 뗄 수 없을 것이다. <비채·1만1000원>

▲편의점 가는 기본=야간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열여덟 살 소년 '나'를 중심으로 도시 변두리의 삶과 이웃 간의 연대를 펼친다. 인생사의 굴곡을 투사하는 예리한 관찰력과 소외된 이들을 향한 온기 어린 시선을 드러내 한층 무르익은 박영란 작가의 문학적 역량을 만날 수 있다. 소설은 외롭고 가난한 인물들이 서로 보듬고 연대해 가는 과정을 담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한다. <창비·1만원>

▲민족의 모자이크, 유라시아=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네이버캐스트를 통해 발간한 글을 묶어 펴낸 책. 유라시아에 사는 수많은 민족 중 과거 소련을 구성했던 15개 나라의 주요 민족을 소개한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카자흐스탄인을 비롯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라트비아인, 조지아인, 리투아니아인 등이 나온다. 민족에 초점을 맞춰 그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한울·3만3000원>

▲아이랑 함께 자라는 엄마=거침없이



솔직한 엄마 신혜경이 전하는 아이 키우는 법. 변산 농사꾼 신혜경은 좀 별난 엄마다. 딸 가을이가 한글 공부를 하고 싶어 할 때도 저절로 알게 된다며 가르치지 않았다. 무슨 신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였다. 딸안 엄마 신혜경한테서 딸 가을이는 단단하고 씩씩하게 자라났고 이제 둘은 삶의 동반자로 친구처럼 살고 있다. 신혜경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보리·1만2000원>

▲콩글리시 찬가=15개국어를 하는 '언어괴물' 신현식이 한글날 570돌을 맞아 과감히 콩글리시 문제를 들고 나왔다. '번역가들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자유자재로 언어 사이를 넘나드는 그가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려 인기를 얻었던 글을 모으고 다듬어 출간한 첫 저서다.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온 여러 '콩글리시'들의 기원을 다룬 최초의 책이자, 콩글리시의 명예회복(?)을 위한 변초라고 할 수 있다. <뿌리와이파리·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동보 임금님 세종의 글적글적 말놀이=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놀라운 문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함과 동시에 엄청난 먹보에 일베레, 피부병 환자 세종의 결코 화려하지만은 않았던 고군분투 여정도 함께 조명한다. 엄마가 읽어 주고 또 아이가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말놀이 하듯 흥겹게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웅진주니어·1만1000원>

▲도마뱀의 발바닥은 신기한 테이프=인류와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자연을 담은 생태모방기술 이야기를 다룬다. 나노군과 나노 박사는 과학자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에서 어떤 지혜와 과학기술을 배웠는지, 그 기술을 응용해 어떤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는지, 자연을 모방한 과학기술 16가지를 소개한다. <창어람미디어·1만2000원>

▲사라진 조우관=역사책에는 기록되



지 않은 고구려 영웅 을지문덕의 어린 시절을 새롭게 창작했다. 동화는 어린 을지문덕이 사라진 조우관의 행방을 좇으며 자연스레 추리동화로 영역을 넓혀 전개된다. 교과서나 역사책에서 접했던 고구려의 관직이나 역사 인물 이름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한다. <사계절·9800원>

▲시크릿 코드 1.2=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루엔 양이 자신의 경험 지식과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코딩'이라는 소재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은 그래픽 노블, 소용돌이처럼 빨리 드는 '시크릿 코드'를 따라 공학과 수학, 지식과 감성을 오가며, 내 안에 잠든 '컴퓨터 사고력'을 번뜩 깨우게 될 것이다. <길벗어린이·각 권 1만1000원>

소설이든 그림이든 다 되는 그들 6명이 뭉쳤다

하우스 오브 픽션

김중혁 외 지음

한 때 북 디자인도 했던 김중혁은 소설 뿐 아니라,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다. 그가 쓴 산문집 등에서 만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은 흥미롭다. 김 씨를 비롯해 '소설이든 그림이든 다 되는'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6명의 작가가 뭉쳐 흥미로운 책을 펴냈다. '하우스 오브 픽션'은 다채로운 이야

기와 일러스트가 결합된 흥미로운 책이다.

김중혁의 '1971년의 기적'은 비행기 실종 사건을 모티브로 쓴 미스터리 단편이다. 8개의 짧은 이야기가 각각 다른 인물의 입을 통해 펼쳐지는 작품으로 책속 주인공들이 그의 예전 작품들 주인공이라는 점도 팬들에게는 흥미롭다.

단편 애니 '연애 놀이'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고 볼로냐 아동 도서전에서 '먼지 아이'로 라가치상 대상

을 수상한 정유미 작가의 그림 소설 '이사'는 애니메이션의 원형인 '플립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독특한 느낌의 이야기이다.

다양한 일러스트 책을 펴낸 '오기사'로 알려진 건축가 오영욱의 '발코니'도 흥미롭다. 집짓기를 의뢰받은 건축주와 그의 요구에 따라 건축가가 계속해서 그려낸 도면이 짝을 이뤄 이야기가 전개된



다. 소설가 문지혁과 만화가 문지욱 형제는 스마트폰에 밀려 주인공 민호에게서 버림 받은 구형 휴대폰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아날로그 보이'를 선보인다.

그밖에 조정란의 '후후후의 숲' 일러스트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이정환의 '여름방학에 마녀를 만났다'는 10살 소년 토마스가 개구리 로니, 고양이 비키, 걸어다니는 어항 폰과 함께 여름방학에 친구들과 함께 낚시마녀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스윙밴드·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m²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정밀농업진흥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0분 거리에서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평균작업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